夕刊
朝鮮日報
京城府堅志洞一九五 朝鮮日報社

經濟會議는 打開될가?

平價切下를緊急手段으로 爲替協定成立圖謀

米大統領의考慮를慫慂한 英國側提案의實際內容

【倫敦三十日發電通】暗礁에걸닌經濟會議議塲廊下를問題의人物英蘭銀行總裁「몬타ー규놀만」氏가이곳저곳으로 奔走히다니는바 一方英國政府는「루즈벨트」大統領에게對하야左의提案을考慮하도록慫慂하면서잇다는報道가잇나

一、米國은直時그金貨弗에含有되여잇는金의純分量을低下식혀서爲替의變動을終止케하라

二、그리하야英國은左와如한新金貨弗四에對하야英貨金磅一의比例로金本位制에復歸할것 그리고英國의態度는「루즈벨트」大統領으로서 右와如한提案을그原則에잇서서承認하면弗의平價切下의 實際問題는그段에論議할수잇는것임으로 爲替의平價切下及安定에對한準備를緊急手段으로하야 爲替思惑防止協定의成立을圖謀하면서잇다고한다 그러치만은「루즈벨트」大統領이그態度를明白히하기까지는英國은上記와如한態度를 固守하기를拒絕할것이며 自治領政府側에서는만일「루즈벨트」大統領이此等의提議를拒絕할時는 磅의運命을金貨에結付되지안토록强壓을加할模樣이라

會議死活을制하는重大契機가되는點에鑑하야 伊藤述史津島壽一兩氏를비롯하야 代表部首腦者는各方面으로부터 確實한情報의蒐集에努力하는바成行이注視된다

會議의討議範圍를 政治問題로擴大?

爲替安定問題로挫折되는것을 憂慮한맥首相의苦肉策

【倫敦三十日發電通】經濟會議議長「맥」英首相은 會議가爲替安定問題로 挫折된것을憂慮하야 爲替安定問題가決定되기까지 會議의活力을回復할苦肉策으로 會議의範圍를政治問題에擴大식히기爲하야 倫敦에參來치안는歐洲諸國의 外相에게對하야來週倫敦에 來參토록要請하려고計劃中이다

佛國代表部 通貨安定覺書提出

【倫敦三十日發電通】佛蘭西代表部는爲替安定問題가失敗하는境遇通貨安定國에미츨 惡影響을力說하면서잇는바 三十日補助金分科委員會에對하야 左와如한覺書를提出하엿다

補助金또는保護金의實際的削減을하기前에 몬저通貨安定의回復을圖謀하는것이 必要條件이다 特히保護金制度는競爭의正常的狀態를妨害하며 他國으로하여금報復的手段을取하게하는憂慮가잇다

歐洲金本位諸國의 對米對立益强化

提出되엿다는爲替思惑防止案

【聯合倫敦三十日發】最後外지金本位制를 維持하려고하는歐洲의金本位諸國과 此와對蹠的地位에在한 米國과의潛行的對立은 經濟會議의歸趨를支配하는 最重要點이되여잇다 三十日午前에 至하여도停滯狀態는何等緩和될模樣이 보이지안는다 一部에서는 佛國以下歐洲金本位쁠럭諸國爲替思惑防止協定案을 作製하야가지고英國의贊成을어더 米國側에 提出하야「루즈벨트」大統領의 回答이數日中에期待되고잇다는 報道가傳播되고잇스나 이러한種類의協定案은 아즉央米中어느나라에도 全然提出되여잇지안타大體現在의情勢로보아아직 起草의段階를脫出치못하엿고 三十日午前에도 金本位쁠럭諸國代表와 英蘭銀行代表와의會議를開催하고討議하는中이다

事實은아즉도五里霧中

佛쏘代表週末歸國

【聯合倫敦三十日發】佛首席代表「선」藏相은週末을 利用하야三十日 午後十一時當地發巴里歸來하엿다

金本位諸國의 共同聲明內容

【倫敦三十日發電通】歐洲金本位國이發表하려고하는共同聲明은左와如한內容의것이라고觀測된다

一、爲替變動을防止키爲한中央銀行의協調

一、但米國에對하여는 共通貨政策의完全한自由를留保할

一、一便金本位國을滿足식히기爲하야金을終局의論理的交換媒介로認定할

日本代表部는 問題圈外의立場

【聯合倫敦二十九日發】爲替安定問題를中心으로亞米利加對歐洲金本位쁠럭諸國과의 抗爭에對하야 日本代表部로서는그圈外의立場인바 이紛議가經濟

金本位國 쁠럭을形成中

【倫敦三十日發電通】佛、伊、白、瑞、和의歐洲金本位國은英米의參加與否를不問하고 最大範圍의金本位國쁠럭을形成하려고하고金本位制의 維持와思惑의抑制를協調하는 共同聲明書에波蘭의參加와 小協商國의支持를求하고잇다

英露會商 相當히進展

【倫敦三十日發電通】英露通商關係의回復을目的하고 임이二回에亘하야會見한 蘇聯外務人民委員長「리드비놉」氏와 英外相「싸이먼」氏는 三十日約三十分에亘하야 第三次會見을遂行한바 右會見後 英露通商問題는只今까지의折衝에依하야相當한進展을보앗으나 안직完全한領域에達하지못하엿다 라는共同聲明書가發表되엿음으로 英露會商의結果에對하야발서悲觀說이流傳된다

歐洲金本位諸國의

爲替安定會議그自體가 依然危機에서彷徨

【聯合倫敦三十日發】英代表를加擔식힌歐洲金本位쁠럭諸國代表의 會議는三十日朝一時間十五分에亘한 審議도何等成果를엇지못하고 午後再開하기로되엿는바 佛國을爲始하야 瑞西和蘭諸國은 停滯狀態를 打開치못하는때는 斷然會議는休會할것이라고하야 英國側을威嚇하고잇스나 英國이依然金本位 쁠럭陣營에 投할수업다는理由로左와如한事由가存在하고잇다

一、카나다以下主要自治領諸邦은貿易上及金融上關係로法貨와磅貨의連繫安定을圖하는것보다도弗貨와의連繫安定을圖하기를希望한다

一、第一各弗聯繫安定이成立되지못한다고하면英本國과自治領과를總括한磅貨쁠럭을結成이有望하다但英國으로서는어데外지米佛間에서調停에努力하려고한다

그리고現在爲替安定問題의暗礁로부터脫却하는賢明한方法은一時此를맛하다가金本位쁠럭의爲替思惑으로부터防護키爲하야歐洲의諸中央銀行、英蘭銀行米國의聯邦準備銀行間에金本位「쁠럭」의防護協定비슷한것을作成하기에努力할것이라고하는案이 米佛의仲介役을하려고하는英蘭國에主張되여잇다

트로츠키復歸說 蘇聯新聞否定

獨新聞의僞報라고

【莫斯科二十四日發電】本日의莫斯科各紙는트로츠키共產黨復歸問題에關한獨逸各紙의記事를否定하고左와如히反駁하엿다

伯林發行「후크스‧차이퉁」其他의外字紙上에政府가트로츠키에게歸國을許可하야至하얏다는報道가揭載되여「알게마이네」紙와如한것은 트로츠키가土耳古記者團에게與한聲明書全文도揭載하엿스나如斯한事實無根한트로츠키의聲明書는勿論事實無根으로讀者의興味를끄을녀는거즛記事이다 트로츠키는一九三二年二月二十日布告의法令에基하야 革命家

俄然英本國側에서 심라會議에干涉

日印會商地點은英本國으로

市場協定에는第三國을包含

【聯合倫敦三十日發】國際經濟會議日本代表部顧問門野重九郞氏는 三十日英商務省에參事官「윌손」氏를訪問하고長時間日英、印通商協議問題에대하야 意見交換을 行한바 當時表明된「윌손」參事官의 意向에依하면「英吉利로서는 日印會商을印度서말고英吉利에서하여달나는것이엿는바 한손을내밀어 「심라」會議를奪取할려고하는意向이明白하엿다 다시「윌손」參事官은問題의本質에對하야

日本品의自由競爭은當然한것인바 다만日本品이海外市場에잇서서重大한攪亂要素가되여잇는事實은 英吉利로서困難한點이기때문에이點에考慮하여주면조켓다市場協定을締結할時는市場의提議를廣義로解釋하야주기를 希望한다

라고述하엿다 이意味는單히英帝國만이아니라第三國外지라도含한다는意味로 그影響은極히큰것이며 本問題에關하야英吉利는俄然히本性을나타내고잇다

舊東北政權債務 第二回支拂決定

七月十日總額의二割을

【奉天三十日發電通】舊東北政權에對한 日本其他列國의舊債에對하야 滿洲國政府는 이것을補償하려고 積缺委員會의査定에依하야 임의昨年十二月第一回分三割五分의 支拂을完了되엿음으로 바그後調査가 完了된二十四日新京에서 列國債權者代表會議를 開催하고第二回分으로서 總額의二割支拂方針을決定하고 다시二十七日奉天에서各國代表者總會를열고 七月十日第二回支拂을하기로 決定하엿다 支拂方法은民國十八年以前의債權은 納品完了未完了의別이업시公債로써 補償하고 十年以後의分은 納品未完了債權은公債로 納品完了는現金支拂에依하기로된바 日本側債權者가受取할額은 五十九萬三千圓이다

外務人事異動

【東京一日發電通】內田外相은事情에依하야 歸朝中의在滿大使館參事官川越茂氏를 轉任식히고 後任으로는本省의谷正之亞細亞局長을 [illegible] 現天津總領事桑島主計氏를起用하기로內定하고 三十日歸朝命令을發하엿음으로 桑島總領事에對하야 歸朝命令을發하엿음으로 桑島總領事는 近日中에 歸朝하기로되엿다 [illegible]

亞細亞局長 谷正之 任大使館參事官

滿洲國駐箚大使館參事官 天津總領事 桑島主計 任亞細亞局長

그리고川越參事官은 目下歸朝中의支那公使館參事官矢野眞氏와갓치 南京及香港公使에榮轉되리라고보인다

銀問題도難關逢着

會議全然停頓狀態

【聯合倫敦三十日發】金本位쁠럭과米國과의對立으로부터이러난爲替安定問題로經濟會議가停頓狀態에陷하여잇는此際會議는再次銀問題로停滯되여새로운暗礁에座礁되엿다 確聞하면米代表는印度에對하야銀의賣出制限에關한長期協定에贊成할것을要求하고 此에對하야印度側은其結果로豫測할수업는事態가發生될憂慮가잇다는理由로此를拒否하고兩者間에完全한意見의懸隔을齎來하고 銀問題의審議는全然停頓狀態에陷하게되엿다

五國會商延期

米回答未着으로

【倫敦三十日發電通】三十日午後四時부터 開催할豫定이든佛蘭西、瑞西、白耳義、伊太利、和蘭等五個國의 金本位國代表의會商은定刻四時가되여도 米大統領의回答이到着되지안음으로 不得已延期하기로되엿다

經濟會議進展?

歐洲金本位國宣言案에 各國全權團이同意

【聯合倫敦三十日發】爲替安定問題를中心으로數日來重大危機에서허덕이는經濟會議는三十日夜에이르러「맥도날드」議長의折衝이奏効하야歐洲金本位國擁護의宣言草案이作成되여에同意하얏음으로 直時이것을「루즈벨트」大統領에게打電하야承認을求하기外지되여形勢는顯著히緩和되엿다 宣言草案은佛蘭西의「본네」伊太利의「쟝」兩首席全權에게「루즈벨트」大統領의特使「모레」氏英國代表「레스로스」氏等會合하야最後的重要協議를遂行한結果四氏間에意見이一致되엿음으로全文을華盛頓에打電한것이다 그리하야爲替安定問題의解決은「루즈벨트」大統領의回答如何에依하게된바全權團에關한限右宣言에同意한結果米國全權團과歐洲金本位國쁠럭의對立은漸次解消되고會議는다시追展될希望이잇다

金本位國側에 英國態度不分明

佛藏相은氣色이不好

【聯合倫敦三十日發】三十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行한金本位쁠럭諸國代表와「맥도날드」議長의會合은全然政治的의것으로銀行家는한사람도列席치안엇섯다 이會合에서는何等의決定에到達치못하얏슴으로 金本位쁠럭의總帥「본네」佛藏相은記者에게 對하야도金本位國은적어도金本位를支持치아니하면아니되는境遇에잇다고말하고 또이조치못한氣色이엿스며 午後四時부터 續開의豫定이엿든會議는 米政府로부터의重大回答이到着되기로되엿슴으로 그內容을볼때外지延期키로되엿다

朝鮮人勞働者의 滿洲斡旋中止

勞働條件不好로

總督府社會課에서는滿洲로부터의依賴를밧은外事課의依賴로滿洲로보낼朝鮮人勞働者에關하야各道에移牒해서供給能力의有無程度等을調査하는一便外事課를通하야滿洲의勞働條件其他를調査하는中으로勞働條件如何로積極的大移送을行할意向이엿스나其結果로大工左官其他一般勞働者도朝鮮內에는滿洲의要求를充分히應할수잇는供給力은잇스나滿洲는結氷期中에는全然屋外勞働은不可能함으로無食하는賃金等勞働條件이넘우低劣함으로積極的으로斡旋하야移送하기는中止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滿洲에서는勞働力에不足을告하고잇슴으로近日滿洲土木建築協會로부터朝鮮內로勞働者를募集하기爲하야 나올터임으로當分間關島로移送할人夫를慶南等地에서募集할터이다

宇垣總督歸任談

本月一日은天皇陛下에拜謁하고一時間餘에亘하야朝鮮內의物心兩方面의現狀及昨年來特히注力한精神作興農山漁村振興事業의詳細와此에依하야나타나는効果의顯著한點을奏上하엿다 또十三日은皇太后陛下에拜謁하얏고約二十分동안朝鮮統治의概要中特히癩病豫防事業及恩賜救療施設의件을奏上하엿다

歸任한宇垣總督은今三十日記者團과會見하고左와가치말하엿다

◇現下世界各國의現狀은例外업시所謂非常時에當面하고잇다 그러나그것을詳細히比較研究하야보면 日本은조흔立場이다 對外貿易으로보드래도 支那方面이막히면 印度南洋方面으로가고 또南阿、南米로進展한다

絹綿工業과가튼것은全世界를風靡하는形勢가잇스니 此際國民全體가이光明잇는立場과 [illegible]

意氣를與正自覺하고 다시一大飛躍을試하면國難打開와非常時解消는 容易한일이다 無方針과無決斷은此際絕對禁物이라고깁히생각하엿다

◇政界는 너무도複雜化하고尖銳化하엿다 시골뜨기가短時日에觀察한것이므로는 眞相을捕捉하엿슬수업지마는 端的으로말하면 政界는昨今의天氣와가티陰鬱하다고말하고십흔氣分이엿다 이것은政治는權力이다 政治는經濟라는思想에 억매여政治는最高道德이라는觀念이 缺乏한데에서오는結果로서 權勢、名利의爭奪以外에何物도업다는政治

北米合衆國과 蘇聯承認問題 (一)

「스크립스하워드系新聞外報部長 P‧W‧씸스

蘇聯은그國家統制의原則이 全面的으로 資本主義諸國과對立됨으로서 世界諸國間의一種의異端者가되고잇스나 엇더케되엿든 그巨大한人口와資源과消費力과特히그劃時期的인五個年計劃의完成에依하야 今日에와서는 一個의强國으로서의對外對內에 萬難을克服하고 嚴然한存在를가지게되엿슴으로 國際經濟에잇서蘇聯을除外하고無關係하대로잇는것은 結局通商上으로보드래도 그리하는國家의損이되는것과갓흔 狀態에이르럿다 이리하야 世界의主要列强은이미 蘇聯을承認치안을수업는處地에서이미 通商條約을締約하고 國交를맷젓스나 依然米國만이今日外지 不承認을固執하여왓다 勿論米國內에서도 자로蘇聯問題가物議되여屢次米議會에外지該問題가上程되엿스나 아모効果도齎來치못하고 有耶無耶에돌아가고말엇든것이다 그러나 米國의蘇聯承認論은民主黨天下가되면서 再燃되야米國朝野의中心論題가되고잇는바 루大統領自身은 承認論이며 上院議員보라氏는그急先鋒이다 이리하야多數의專門家가莫府에派遣되여잇스며 더욱이蘇英兩國代表의今回의倫敦會議를通한會商으로 本問題는過去와갓치 一種空論에쯧치고말것과갓지안코 具體的成果를엇게될것과가치 期待되는이때 스크립하워드系新聞外報部長씸쓰氏의 蘇聯承認問題에對한論說은傾聽할만하다

米國이 ×××

勞農쏘비엣트承認을反對하는理由가 세가지잇다첫재로는

革命當時 에쏘비엣트政府가米國市民의 財產을沒收한것이오 둘재로帝政時代의對

米借款을 履行치안는것이오셋재로는蘇聯과 第三國際公產黨사이의 密接한關係ーー즉機關에 聯絡하야 世界的으로

共產主義를宣傳한다는것이다

勞農쏘비엣트는 以上처음두가지理由에 對하야서는 일속이好意로써 米國과會商하기를提議한일이 잇섯다그리고蘇聯은問題의 解決은오즉 兩國의會商에 依하야서만 解決이可能하것을 말하엿다 此種會商은複雜한其前

外交關係 의利權主張의

妥協에依하야 進行되는것이晋通過程이다

大戰當時 ××× 의聯合國側의

境遇를보면 그들은그 危急存亡之秋에 數十億의 外債에依하야바로그들의 生命이保存되엿다 그리고 그들 自身이亦是 이事實을 首肯한다 합에도 不拘하고 只今그들은그外債의支拂을 拒絕하지안는가? 反面에잇서서 다른 한나라(蘇聯)는自己의 敵이엿든前政府의債務는 支拂치안을것을 率直히 聲明하엿다 합에도不拘하고 그는兩國利權의打算的基調(Basis of give and take)우에서 이問題解決을爲한會商을提議하여엇다

이가튼情況은 充分히理解하고以上두境遇를생각한다면 何者가더큰

背信者일

넌지簡單히速斷하기어렵은 일이다 그리고只今米國이쏘비엣트와 會商하는것이 다른歐洲諸國들과 會商하는 以上으로困難할 아모理由도 업는것이다

다음「푸로파간다」에關하야考慮하여보자 한때에잇서서는蘇聯指導者들은 露西亞單獨으로도 훌융히社會主義國家를建設할수잇다고 밋은적이잇섯다 그러나 얼마지나서ーー월터‧주랜티ー及其他在莫斯科아메리카通信員들이거듭報道한바와가티ーー쏘비엣트푸렛쓰의

世界革命 의幻想은漸迷狀態에빠지고마럿다 나의質問에 對하야 쏘비엣트 外交委員長리트비노브氏는 이러케말하엿다「萬若우리들이 쏘비엣트露西亞를 成功식히지못한다면 外國宣傳에 幾十億金을消費하는것이 무엇이우리의게 利益인가? 反對로露西亞가現制度下에서훌융히 쑈치핀다면「푸로파간다」가 도모지 所用업슬것이다」

이外에도 ××× 考慮할點이 이잇다ーー즉宗敎가업고 家族을否認하는나라와 國交를許하는것은 아메리카精神에 違反

되다고 생각하는分이 적지안타그러나 이가튼高等한

倫理道德 과 國際上承

認問題와는 別個物이다 우리들은 이미一夫多妻主義的國家도 承認하엿스며 一妻多夫主義的國家도 承認하엿다 그러고우리들이 밋는바나님을侮辱함을안이라 子息이나면 配匹이나무어주는 생각以外에는二世國民의道德的生活을責하야야 모것도盡力치안는 國民도承認하엿다 便宜上무엇보다도承認問題를 決定하는 一般的要素를指摘하여보자 우리들은이미獨裁政府를承認하엿스며 또一個人이나 或은數個人의私腹을기름지우기爲하야 存在하는政府外지도 承認하엿다 우리는오래前브터 東洋에

變化無極 한諸種政府와

外交關係를맷저왓다 웨? 그리함으로써 우리國民은보다더 幸福스럽히살수잇는外닭이엿다

× 그러면 現今露西亞의 境遇는 엇더한가? 上院議員보나ー氏는 말하엿다「全世界中露西亞는 가장有望한外國市場」이라고 그리고英國保守黨領袖「윈스톤‧철르칠」氏도 가튼意味의말을하엿섯다

北鐵賣買交涉과

日本의平和的意圖를 計量하는尺度가된다

蘇機關紙論調

【莫斯科三十日發電通】蘇聯政府의機關新聞「이즈베스챠」紙는本日目下東京에서 進行中의北滿鐵路賣買交涉에關하야 左의論說을揭載한바 賣買交涉이야말로日本의平和的意圖에서나온尺度라고하엿다

쏘베ー트政府가 北滿鐵路의讓渡를提議한것으로 쏘베ー트聯邦의弱點을뵈이는것이라고解釋할려는努力은 아무効果업는일이다 쏘베ー트政府는滿洲에政治的利害를가진것이아니고單히北滿鐵路의經濟的利益을擁護하려는데不過하고 同鐵路의讓渡를提議한것은쏘베ー트政府의 外交政策과全然無關係한 外國의勢力範圍에關한抗爭에關係하기를조와하지안키때문이다 日本의新聞은 쏘베ー트政府가北滿鐵路의外讓潮 그他의極東에잇서서의 쏘베ー트領土를讓渡할는지도몰은다는 風說이報導되여잇는바 쏘베ー트의興論은이러한風說은 問題視하지안는바 이것은北鐵價格引下의示威外에아무것도아니다

八面鋒

◇京畿道內에 細民이九萬二千戶、그중에도要救濟者가四萬戶라고。

◇世間가苦悶中으로變하야 慶南北에大水難。여기도또災民이멧千名일고。

◇天災、地災、水災、火災、는막을길업는일이지만、사람이서로和하면 多少의도움은될수잇는일。

◇土匪로苦心하고天災地變이 더욱거듭하기에 가장적은災禍가어데잇스랴、다른곳은人災바겟사랑하여야겟다◇歸者의敵!一果서云것은人災!

◇號外發行

本社에서는六月三十日과七月一日에嶺南水害事件으로號外를發行하엿습니다

南朝鮮一帶에서 汎濫하는大洪水

避路杜絶食粮乏絶 五十名生死不明

進永五千住民은學校로避亂中 家屋三十餘戶流失

三浪津에서 本社特派員 孫興俊 發電

경남 일대를엄습한홍수는 계속하야폭주하는 호우로말미암어더욱 심하야젓다이까닭에 진영(進永) 지방에서는 피난민이약오천명에 달하는데당장수용할곳이업서 진영소학교와 진영보통학교와및대산(大山) 보통학교에 속속수용중인데무엇보다도 염려되는것은 진영압장성중 농장에사는농민 오십명은물에가치여 피신할길을일흔채로잇는바 사면으로복되 물이세차게 구비처 엄습함으로교통과통신의련락은 견혀두절되엿다 그들은 그섬속에서 물란리를맛나지안엇더라도 식량의배급이 끈치여크게염려되는터인데 물의공격과식량의 결핍으로이중수난을 하는까닭에 그들의 생사가 극히 염려된다 하남(下南) 수리조합의 제방은삼십일밤 여덜시에 드되여결궤되엿고 여긔따라대산(大山) 수리조합구역안의 농지일천정보와 바간(追間)농장구역안의 농지이천팔백정보와동면(東面) 수리조합구역의 농지칠백정보가 침수또는류실되엿고 이들농장구역안에잇는농가삼십호는 류실되엿고 이백여호는침수되엿다 창원군대산면류등리(昌原郡大山面柳等里) 에서는 주민중에서사자일명이잇섯다

梁山郡下에는 一洞全滅狀態

량산군하서면 룡당리(梁山郡下西面龍塘里)에는삼십륙호 되는한 동리가 전멸 상태인바 사망자도잇는듯하다

釜山市內電車停運 倒壞家屋三十餘戶

◇부산부내의피해로 지금까지 판명된 것은 수정정(水晶町)에서가옥삼십오호가 도괴되야주민은방금부산주학교에피난중이며

◇삼십일밤 부산부전차는운전을중지하엿고

◇부산역에서는귀포(龜浦)로동원된자를 출동시켯는데 경남도토목과 에서는 탈자에인부칠십이명을싯고 락동강부근 피해지를당하야 삼십일밤부산역을출발하엿다

洛東江繼續增水 浸水農地六千町步

混亂으로詳細는姑未判 豪雨는尙今暴注

【釜山支局至急電話】 락동강연안수리조합구내는 거이전부가 침수되엿는데대저(大渚) 대산(大山)진영(進永)켜일하남(第一下南)켜이하남(第二下南)동면(東面)김남(金南)초동(初同)고성(固城)등각수리조합의 피해구역은 모다 오륙천보가량으로 추측되나 아직조사확실치 이안되서자세한피해는 불명하다비는 지금도오히려 그칠줄을모르고 퍼붓는중이다

今曉一時四十分 京釜本線만은復舊

東海中部와馬山線은不通

경부선철도는 대구(大邱)와지천(枝川)사이의 선로가상하야 삼십일오후부터 불통중이라함은긔보하엿거니와 밤을새어복구공사에 로력한결과 일일오전 한시사십분에 복구되야 경북본선만은 전과가치각렬차를운전하게되얏다 그리고삼랑진(三浪津)을긔점으로한 마산선(馬山線)과 대구포항간(大邱浦項間)의동해중부선은 아즉도복구가망연하야 어느때개통될지모른다고 한다(以上號外再錄)

記錄的降雨! 七石以上이暴注

三日에나개인다는釜山測候所觀測 附近一帶의雨量

【釜山一日發電通】 남조선지방에나리는 비는일일도 쉬일줄몰르아침여섯시 부산측후소의 관측에의하면 일일은낮이개이지안코 삼일경부터나 일긔가점차로회복될 터이라한다 비가오기시작하야 일일오전여섯시 까지의평균강우량은삼백이미리(七石)이상에달하는곳도잇다

飛行場浸水로 旅客機도缺航

련일나리는비에 울산(蔚山)비행장에도 물이몰려들어 비행긔의 착륙을할수업시되여 항공교통도 두절되엿다

慶南各地雨量

【釜山】 이십구일오후세시까지 경남도경찰부에 드러온청보에의하면울산(蔚山)사천(泗川)협천(陜川)거창(居昌)진주(晉州)산청(山淸)마산(馬山)창원(昌原)동지의 주요교통선은 자동차가 전부불통되고 진주남강(晉州南江)은이십구일오후세시까지 사메돌사십이나 증수되고 울산태화강(蔚山泰和江)은륙척팔촌이나 증수되엿다한다 각지우량은다음과갓다한다

△泗川 一三七미리△咸安 一〇六미리△宜寧 一一四미리△固城 一一六미리△山淸 一五二미리△梁山 六六미리△統營 七九미리△鎭海 一三八미리△河東 一五四미리△居昌 一四五미리△密陽 九五미리△馬山 一六九미리△陜川 一七三미리△東萊 九六미리△晉州 一四〇미리△釜山 七七미리△蔚山 九六미리 (以上二十九日正午調査)

向島도危險

【釜山一日發電通】 일시위험하다고 보이든락동강향도(洛東江向島)는 아직도 물이줄지안어 위험하나 그리념려할 정도는안이고 목하 엄중히경계중이다

服役中의罪囚 獄中에서面刀自刎

平壤刑務所에怪事

【平壤支局電話】 삼십일정오에 언도를맛고 작년십월 이십구일부터평양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양원교리(養元橋里)사번지 김두실(金斗實)(二六)은일일오후다섯시분에작업장에서 작업하다가 달은죄수(리발사)가갈아가지고 가는면도칼을 빼아서 목을찌르고피를흘리며 소동을 이르키엿는데 동형무소에서는 드되여 절명하엿는바 형무소의 말을드르면 원인은 정신에이상이 생긴듯하다고한다

에동하는자동차선로가태하엿다

倭館浸水念慮

【聯合大邱發】 락동강(洛東江)은 목하도증수를계속하야경부선왜관(倭館)의침수가념려되던다 대구지천간(大邱枝川間)은 삼십일오후아홉시부터 침수로 불통되엿으나 일일아츰 세시에 복구공사가끗나개통되엿다

廣州郡內兩面의 合同問題로紛糾

찬성반대의량파가분규

광주군(廣州郡)내의 언주면(彦州面)과 신동면(新東面)량면의 합병문제에 대해서는 량면유지들사이의 찬성반대의 의견이만흔데 지난이십오일에도 언주보통학교에서 량면합병 유지회를 개최하엿으나 량면의교통 예산문제등에 관해서 찬성반대의론 견이 격화한까닭에 의견의일치를보지못한채로 중도에 폐회하엿다고한다

忠南被害

충남의 인명손해는 사망자 한명 행방불명 네명이잇고 가옥은서천군(舒川郡)에오십호대천(大田)에십이호가침수되고각방면 삼십팔미돌 전답의침수 삼십정보등으로 손해가크다

取扱中止中의 四支線旅客貨物

今朝九時半現在狀況

남조선일대의 비의피해로 철도운전을 할수업기때문에 려객하물취급을 중지하고잇는것이 일일오전아홉시반 현재다음과 갓다 (괄호안은피해구간)

一、鎭海線(昌原、鎭海間全線에亘함)
一、東海中部線(西岳、光明間)
一、慶全南部線(楡林亭、進永間)
一、京東鐵道(驪州、原州間)

總督府入電의 各地被害狀況

일일정오까지의 각도 수해통계는아래와갓다

忠南道 人命死亡一人 行方不明四人 家屋浸水、床下 六一戶

全南道 人命死亡一人 家屋浸水、床下 一五九戶

全北道 人命死亡一人 家屋流失九戶 半潰一戶 浸水床上三二戶 床下五五六戶

慶北道 人命死亡一人 家屋流失一戶 浸水床上一五戶 床下二六五戶

慶南道 人命死亡一人 負傷四人 行方不明七人 家屋流失 一一戶 半潰一戶 浸水床上一五〇〇戶 床下三九二戶

合計 人命死亡五人 負傷四人 行方不明一一人 家屋流失二一戶 浸水床上一、八四〇戶 床下 一、四三三戶

『별나라』紀念會

예정대로금일거행

소년잡지『별나라』사에서동사칠주년 긔념을하기위하야 일일오후칠시반 시내정동 배재대강당(培材大講堂)에서 『동요、동화 동극대회』를 개최한다함은긔보하엿거니와 비가올지라도 예정관계로 날자를변경하지안코 그대로진행하리라고

天氣豫報

曇 小雨

小低氣壓은黃海로부터徐徐히北東에進行하고南中國에도低氣壓이잇서東으로 移動하고잇다南岸은비가아직도나리고 의西岸에는안개가석엿다明日도日氣는조치못하다

溫度 昨日最高二十六度三 同 最低十七度二 今日正午二十三度二

雨天은明日도繼續 南朝鮮이더할듯

測候所의『大空非常時』打診 快晴期는杳然하다

【釜山一日發電通】 하로앞을 예측할수업는 장마날씨는 경성을중심으로 어쩌하릇동안만은 비가거릇듯 해보이엿으나 남조선방면은 계속하야비가 내리고잇섯고 경기지방도금일아츰부터다시 비가오기 시작하엿다 비가만히 오기는 역시남조선방면으로 으늘아츰 여섯시까지하로사이에 釜山 一〇〇미리 濟州 六〇미리 木浦 一五미리 全州 四미리 이엇고 아직도계속하야 비가오는중인데 경성측후소의 말을들으면 장마는 다시계속되리라고 한다즉 긔압배치는중국상해(上海)압바다에칠백사십팔미리(粍)의 유력한 저긔압이잇서 남조선해방면을향하야 진행중이고 또황해에는인천(仁川)압바다에 소저긔압이잇서역시 북동으로 진행중에잇고 긔압관계는아주판백인 장맛시절을 표시하고잇다 이가티 하여래일도비는멋처지안코내릴터인데 중부이남 남조선방면이 더만히올모양이라한다

鐵道狀況詳報

【釜山一日發電通】 부산철도사무소관내의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의 대구울산간(大邱蔚山間) 울산포항간(蔚山浦項間)은곳곳마다 침수되여 삼십일오후부터 운전을 중지하고잇는데 복구될희망이 묘하로서는견연업고 부산진주간(釜山晉州間)의 진영(進永)부근도침수되엿고 창원진해간(昌原鎭海間)은일일오전부터 개통되엿다

死者九名判明

入電된重傷者七名

【釜山一日發電通】 일일아침까지에 경상남도경찰부에 드러온피해보고로보면 죽은사람이 아홉명 상한사람이 일곱명뭇허진가옥이 열여섯호 침수된가옥은 일천사백칠십륙호 키방이떠나려간곳이 십구개소 전답의침수가 삼천이백팔십륙정보이나 실시의 피해는 그몃배에 달할터며 도내의교통은 전연불통상태에잇다

慶北의被害도 乙丑年에比等

전답의피해가퍽만타

경상북도는 금호(琴湖) 류역의 달성(達城)경산(慶山)등지에침수가 만어완연 을축(乙丑)년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전답의류실 매몰과 농작물등의 피해가만흔 모양이나 엇더한것은 아직판명되지안엇다 그중에서 판명된것은경산군에 침수가옥 류실오호가잇섯고 철도는 동해중부선칭산역(東海中部線某驛)부근이약 한자침수되엿고 부근 철도선로가 일백삼십미돌 기라이백이십칠미돌이 침수되여 철도가불통이다

全南被害

전라남도 피해중키방(堤防)이 문어진곳이 열곳에 일천여미돌이나되고 도류실된것이 삼백구

覆面한兩怪青年 自動車奪取運轉

運轉手를日本刀로亂刺重傷 咸南咸州에時局犯

【咸興支局電報】 삼십일밤아홉시경에 함흥물산회사(咸興物産會社)의소유자가용 자동차를 동사운전수가 운전하고 함주군운남면운흥리(咸州郡雲南面雲興里)부근을통과하든중 길가숩속에서 돌연히 수건으로 얼골을가리운 청년두명이 내다르며 압길을막음으로 즉시속력을느추엇든바 그들은타서 그중의한명이 몸을날려 자동차에올라와 갈이석자가량되는 일본도(日本刀)로운전수의 다리를 찔렷고 운전수를 노끈으로 결박하고 다시소리를못내게 재갈을 먹여뒷칸에 다가지르게하고 자긔네가 자동차를 운전하야가지고 함흥의 큰길을 통과하야 현장에서 오십이나되는 흥상(興上)으로 가든바 자동차는 권긔지점에이르러 가다하야 『엔진』이 정지되매 귀청년들은 산중으로 몸을감추엇다 경찰이알기는 동아열한시경이엇는데 즉시경관이 출동수사하얏스나 종적이묘연하다 물질적으로 금품의피해가 업는것과 그들이주죽어와 일본말을잘하는것으로보아시국에대한청년인듯하며피해운전수는중태이다

억센朝鮮建設에 參加希望者遝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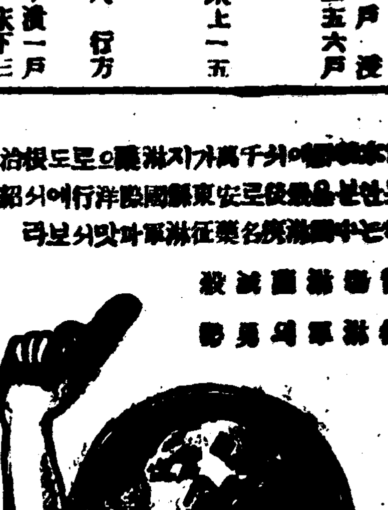
체육연구회에서교재선정 三日부터第一回講習

본사의 보건운동의 첫소리로 시내학생층을 총동원하야 하긔보건체조반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발포되자 이에찬성하는 각학생의 신청이답지하야 억센조선건설의 첫소리는 그들의 열렬한 참가로우렁차게 질르게되엿다 보건체조에 사용될교재는 그동안 조선체육연구회에서 각종체조법을 참조하야케작중이든바 이것이완성되엇스므로 본사에서는 즉시이를 인쇄에 부치어십만부를 출판하야 체조반원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되엿다 체조반지도원의 강습은예정과 갓치삼일부터 개최할터인데 참가할이는다음의 주의사항을보고 정각에참러하기를바란다.

◇時日 七月三日부터五日間 (午後五時-六時)
◇場所 中央基督教青年會館
◇講師 金保榮 金明德 張權 裵相鳳諸氏
◇申請 開講即前까지申請을바들터이니 志願者는講習會場으로오기를바란다
◇備考 一、會員이定員二百名에超過될때는數班에나누어講習할수도잇슴 二、第一回講習에뒤니어二回三回로講習을繼續할豫定이므로一回에參加치못한學生은二回에參加도득할수잇슴

君不見中國有名藥乎?

中國名藥征淋軍



百發百中이다 淋菌이 百萬마리가잇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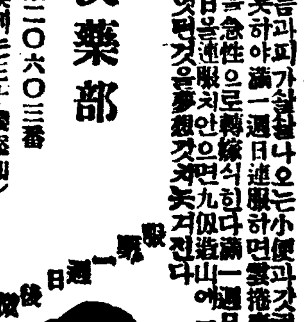
一、急性이면 急性이라도 二、慢性이면 慢性도 永久根治됨니다

淋疾藥征淋軍 急性全治用一週日分一金二圓半 慢性全治用一週日分一金四圓半 二日分試用一圓也

服藥後의異狀

對急性 服藥始作하지二日만이면 ...

對慢性 服藥始作하지三日만이면 ...



國際洋行唐材漢藥部 安東縣市街八西

振替口座京城二〇六〇三番 (全部先金이면送料負擔、代金引換에는三十錢添加)

自七月一日氷價改正

小賣一貫匁에對하야金八錢(府內一般配達付)

右와如히改定하엿나이다

追而小賣業者에서當社發表의價格以上을要求하는者가잇슬時에는警察署又는當社及中央物産株式會社에其氏名을內報하심을願합니다

京氷合同株式會社 創立事務所 電話龍山一〇〇番

新刊書籍大市

古本 春秋社世界大思想全集 春陽堂明治大正文學全集 改造社世界大衆文學全集 其他新本均一五萬冊

高價買入特報 ▲地方新本古本及教科書目錄郵券貳錢을要함

京城府明治町二丁目 振替京城一三七九七番 電話本局三三三七番 金剛堂書店

今年滿五週 十 年紀念九月

肺病專門療養院 黃海道海州南山外

入院案內書要二錢切手 療養指針書三二錢切手 保健誌十一月頃發行

院長醫學博士金乘瑞 電話一七五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吳元錫 產婆金奉允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車停留場前 電話光二一三二

말더듬이

世界無二의新療法萬一無効時는 正料는勿論이고食費外지一切無料 費用은全治後라도無關 規則案內書無料付送

釜山府草梁町四五〇番地 釜山訥言學院

謹告

清津府浦項洞八二番地 金武兼 當四十八年

右者는精神上異狀이有하니府內人士는絕對金融上信用치마시오

親權者 金周永 白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京城朝鮮

(呈贈內案業營)

株式會社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八〇、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取締役會長 白完爀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及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開城、大田、永同、大邱、釜山、城津、延安、平壤、平壤大和町

朝鮮劇場

高級發聲 戰慄街 動物園殺人事件 R.K.O. 米國擊滅艦隊

六月二十九日낮부터 特別普通 料金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十錢

文藝名畫週間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文藝篇 蝴蝶夫人 (日本版) 全十卷

暴君네로 全十四卷

豫告 帝王篇 母性愛 絕讚篇 次週=폭쓰特作名畫! 오버되-헐

優美館 光三九五

七月一日낮부터 每日二回 낮一時 밤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喜歌劇 戀愛行進曲 全八卷

◇파라마운트社特作品 雪上活劇 暴風의絕叫 全八卷

◇MGM特作大映畫 紅唇百萬弗 全七卷

가니발祭의어린니 全七卷

◇엘모리에 特作映畫 暗夜의怪船 全七卷

七月一日부터 納凉特別大公開!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番

永遠 夏期特別興行 近代流行映畫小曲 林生員 特別出演

貧者의寶貝
여름庭園의쏫
士香園人

庭園◇ 이야기를 쓰는것은 너무나 豪華로운수작갓기도하고 入字편한노릇 갓기도하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먹고사는 動物이아닌以上 許諾되는限度 안에서는 心身을爲하야 必要한여러가지의慾求를가지고잇는 것이事實이다 이런한까닭에編輯子가 나에게『여름의庭園』을 쓰라고하는것도 全혀無意味한 일은아닐가한다

그러타 庭園은 **都市의**『오아시스』이다 雜音과喧騷中에서 日光조차 변변히구경하지못하고 그날그날을 시달녀사는人間들에게 아츰에十分間 저녁에 半時間이라도 靑靑하고新新한 庭園속에서 눈을쉬이고 마음을쉬이고 몸을쉬이게할 機會가잇다고하면 그얼마나 幸福스러운일일것이랴 그러나 이것은쓸데업는空想이다 貰入집사리로 쫏겨다니는무리에게 口腹을爲하야서도 허덕이는 무리에게 庭園이라는말부터가 잠꼬대와 가튼소리로들닐것이다

그러나 사람의努力은 잘살고잘되기爲하야서만 意義가잇는것이니 업는庭園을 잇는듯이 마음속에그려보는것도 사람만이할수잇는『재주』라할것이아닌가 그러면 讀者諸君 나와함께 잠간동안『여름의庭園』으로발을옴김이 若何오——

豊艶한 그姿態를자랑하든봄花壇의女王 **牧丹** 도벌서다젓구려 자랄대로자라고퍼질대로퍼진蘭草 무덕이사이에 가냘핀줄거리에 날너갈드시 옷는쏫이 少年의 氣象을뵈인다는石竹花가아닌가요

울밋헤 울긋불긋 봉사쏫 百日紅은 시악씨네차지라니 그대로지나가고 섬ㅅ돌우에 登盆한쏫 제철마진百合과水菊인듯 하나는淸楚하고 하나는소담하야 시원한중에서도 흥겨운 한情을준다 여름에피는쏫으로

蓮花 가조치만은 좁은뜰에蓮塘이잇슬소냐 그대신피인 쏫이『한련』이라이름하네 붉고 누르고희고 샛밝아 얼골도가지각색 서고긔고 닷고감어마음씨도만코지고

◇녯날에는 迷信으로 鬼神이 실혀한다하야 祭祀지내는집안에는 심을번도못하든『해바래기』지금은 뜰가운데 여름쏫의大王일게 節介딸하 지은이름 朝夕으로指東指西 植物의 向日性이라하면 맛업는科學語에不滿하나 情을두고 볼작시면 사람도담고지고 푸른닙속 어진사어로 은은히뵈는것은함박가쏫

葵花 인가 그것헤 두어줄기 白梧桐이자랏스니 未久에 봉오리가나오고 그봉오리가자라서 쏫거노흔生栗가치어엿분模樣을뵈일께엔 더운여름도 한마루를넘어서 朝夕으로는 선들바람이불것이다

◇貧弱한 우리네의庭園에서이만큼 구경을하엿스면 그만이아닐가 자 이제는 또일터로 갈時間이되얏나부다 엇재든여름철은 쏫이貴한때이다 그럼으로

夏節 은無花節이라고도하지안는가 봄이지나고 여름이되라하면 사람들은『綠陰芳草勝花時』라고한다 綠陰이쏫보다 조흔지나진지는 커마다 맛대로 解釋할일이지만 여름은지이다 多幸히나의뜰에도 씩씩지안흔쏫보다도 한그루의銀杏나무가잇서 손ㅅ바닥만한뜰에 그늘을지어주며 亭亭한그氣魄과 凜凜한그風度를 時時로뵈어줌은 무엇보다愉快한일이다

여름바다
『自由를求하는 그대여、바다로가라』
金岸曙

K兄! 여긔는 元山이외다 찰삭찰삭 물결은 무엇을노래하는지 東海바다 넓은곳을드나들면서 기슭을 치며興겨워합니다 어두은밤을 새와가며 燈臺들은 무엇을속삭이는듯이 반듯거립니다

바다는 水銀가티 하얏습니다 바다는넓습니다 自由롭습니다 바다는 쓴지아니하고뛰놉니다 어듸까지든지 씩씩하외다 잠시라도쉬일줄을 물으고 움직입니다 바다에게는쓴지아니하는勇力으로의活動이 잇슬뿐이외다 바다어머니의 큰德을 나는니즐수가업습니다 맘이 툭 터집니다 조곰도

拘束이 란업습니다 나의步도 바다와가치 自由롭고 넓고 씩씩하고活動性이잇고십습니다

그런지라 어느詩人의말한바『自由를求하는그대여 바다로가라』한文句를 나는 니즐수가 업는가보외다

K兄—— 뒤숭숭한 뜬시름을 모도다 東海바다물에다 나는 던저버렷습니다 그러고 혼자고요히 모래밧에 눕어서 맑한하늘을 치어다봄니다 하늘은 넓습니다 오락가락 無心한구름쎤길도업는虛空을 헤매돕니다 이쌔외다 건들건들 無心한바람이 나의니마를 어르만저줍니다 나의맘은 싸닭업시 저넓고 넓은

虛空을 구름가치 바람과가치 헤매도는것도 이쌔외다

바다를 바라보니 조고마한 배가 썻습니다 어듸로서 어느곳을 가는지 아모도몰을것이외다 저바다쯧헤는 하이한 하늘이 안젓습니다 그러나조고마한배는 나아갑니다

扁舟에 바람실고 滄波에쓰니
뒤숭숭한 世上일 맘속이랄가
건들건들 바람은 니마를불고
찰삭찰삭 물소리 催眠曲이라

이것은卽興이외다 이런노래가 읇고십헛습니다 이런非現代的인 漢詩風的世界에 나의맘은 폭 안기여 뒤숭숭한現代苦를 닛고맙니다 잡든것처럼 그리고요할뿐이외다 요란한都市를 떠나고요하고보드람은自然속에무치면 언제나 이러한

心情을 禁할수가 업스니 이어인일인가 사람이란 그周圍와事情을 암만해도 버서나지못하는가보외다

낙시대 손에들고 바다로가니
오락가락 갈매기 내쑴일비라
물속에 발을넛코 잠자다새니
오늘도 누엇누엇 날이것은다

이것도 卽興으로의나의心情이외다 理智로는『아이스크림』이라도 씹어먹어야 맘世上이외다 그대로 삼켜버리지아니하고는말지안으라하니 이곳에서 나는

理智와 感情과의背馳를 發見합니다 나는 그둘가운데서 어느것은 버리고 어느것은 取해야할지 몰릅니다 도로허 괴롭는일이외다

K兄! 세팔한冷味가 좋은는 心情을 求하시라거든『現代的』과는 잠간 손을난호아버리고 커 依然한맛이 찰찰넘치는謹詩風的天地로 들어오십시요 無念無想으로의 利慾을떠난 閑雅한世界로 들어가지아니하고는 이現代心的敏感은 위로 바들길이업는것이외다 現代人으로의

苦悶은 實로이곳에잇는것이외다

그러나우리는 現代人이외다 우리에게는 그림자가치 쌀아다니는 現代心이 언나 떨쳐어지지 아니하는것을 엇지합닛가

물결은 찰삭찰삭 노래불으고
모래알은 물딸아 기슭을돌며
온바다 커먼곳엔 반가운흰돗
바다가 그립길래 내가왓노라

그러컨만 웬놈가 외롭은맘은
채울길 바이업서 그커외로이
저멀리 하늘쯧만 처다보거니
누굴차자 나여긔 元山을온고

이것은 또한나의卽興의心情이외다 웨외로운지나는몰읍니다 그러나놀을수업시 떠올으는것을 엇지합닛가 하로이틀 지내가는동안에漢詩風的 나의天地는 차차얇어지고 채울길업는 心情에외롭아할뿐이외다

東海바 다시연한 물결우에다 뜬시름을 모도다던저버리고이하로는 가장유쾌하게 지내잣드니 찰삭찰삭 노래하며들어오는물길을딸아 내여던진그시름이 다시기슭으로나의 心情을 차차돌어오는것을엇지합닛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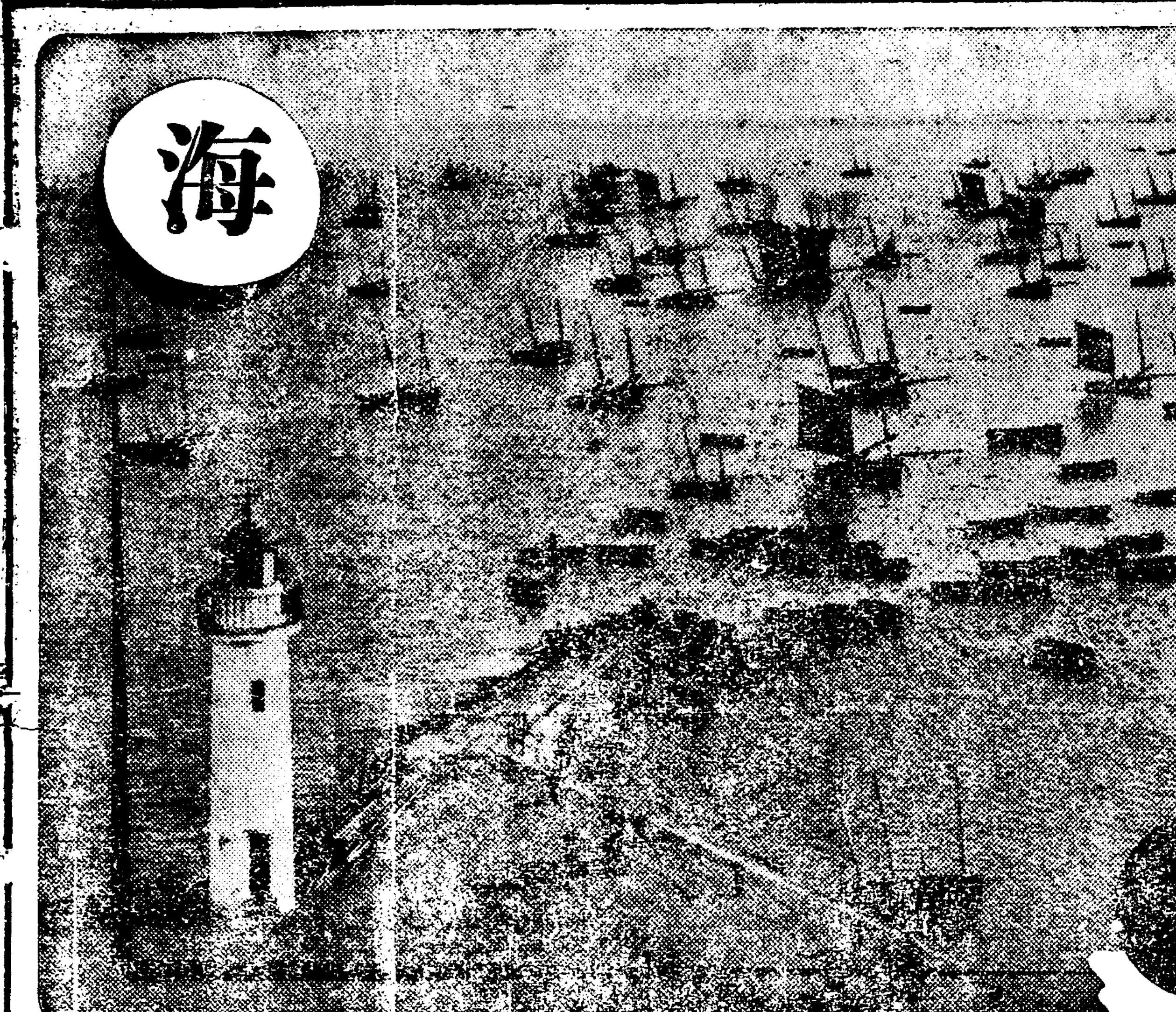
우리는 한쌔의樂을 어들수는 잇습니다 그러나 그樂을 언제까지든지 가질수는업는것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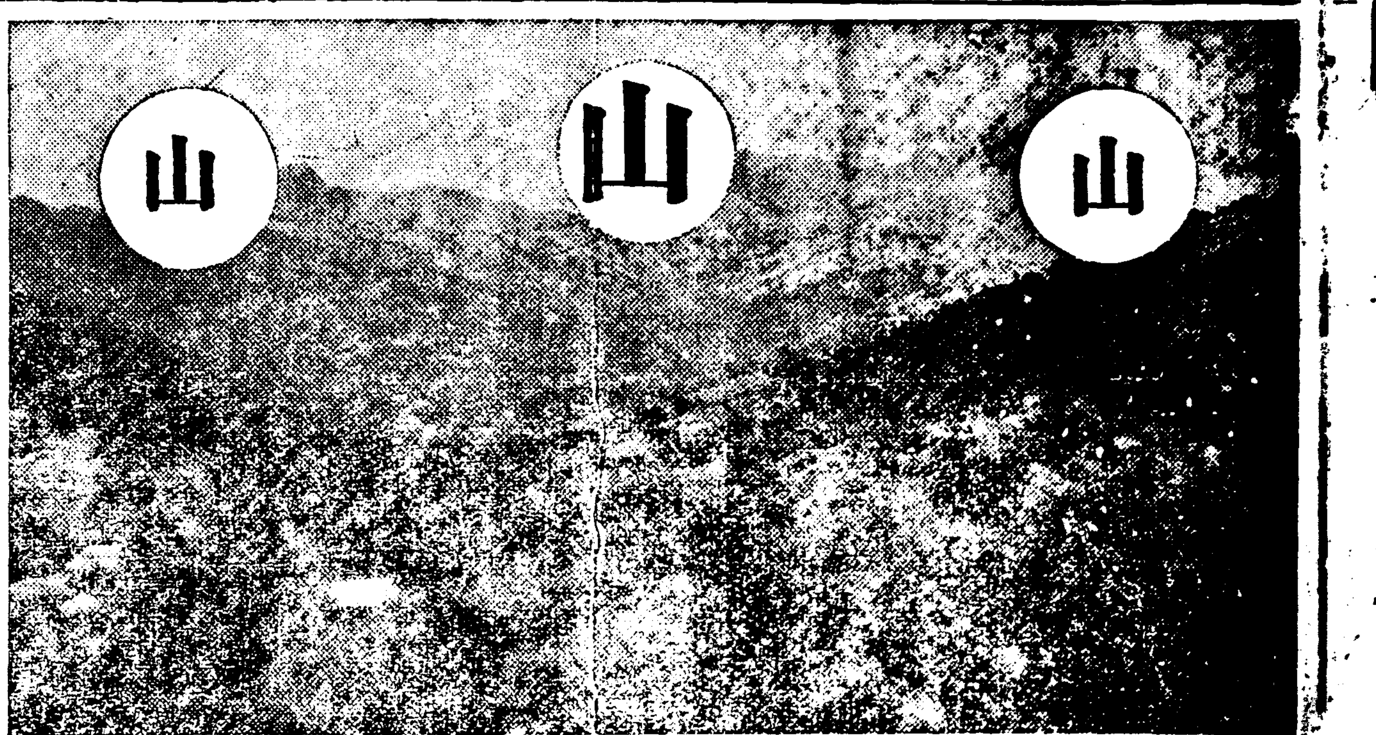
K兄——

여긔는元山이외다 물결은쓴치지아니하고 찰삭찰삭노래를 불읍니다 새캄한밤을 등대들은 번가락가며 반듯거립니다 希望이죽고 노래가쓴허질여써지 나는赤是채울수업는心情을못안고 맑한하늘에떠도는구름을 바라보며 건들바람에니마를볼니우며 지내지아니할수가업겟시요 바다는

自由롭 습니다 씩씩하게노래합니다 쓴치지아니하고 活動합니다 나는한갓되이바다어머니의偉大한心情을 원망스러히 보려위함뿐이외다

一九三三·六·二九日『아파트』큰온날





웃저안는「아폴로」
그리운옛뜰의午後
片石村

여름이되면 山이그립다 도커히허락지안는사정에 몸이엉크러잇슬쌔에는 山을 그리우는 생각이더욱기프다

術道우헤서 反射하는太陽의 幅射熱은 大氣속을흐려터이는 모—든物質을 分解시킨다

그래서 홀가리게하고잇던사람들에게서조차 우리둘뇌코는 뭉글한몬냄새를뜻기며 戀愛그것조차가 여름에만은로맨쓰를 옷을 입을수업다 그러니서

戀愛 로부터避暑하기를志願하는사람도 여름에만타 여름은 다만 혼자서山으로가고십다

바다는 品行不正한『되오니쓰쓰』다 그런까닭에따파와『오바돌은』어떤 아가씨들이 海水浴場으로가는것을 마음으로부터 즐겨하지는아니하엿슬것이다 地上에서는 사람들은 山과山이속삭이는소리를 드른일이업다 山들은항상구름속에 머리를감추고 明鏡과만이야기하기를조와한다

그러니까山은 우숨을모르는『아폴로』다

우리는 수풀속의고요한

午後 에그의사랑하는 羊[illegible] (牧神)을 山속에서燒香할는지 모른다 꽉작을울려 떠러지는 물소리와 그樂소리를드르면서 끝업시푸른淡衣를둘러쓰고 머더울것잡고잇는山이 에다거그렷다

경은얼굴을가진 경은바위
라는가슴에문에 수수되얏을
가슴이막혀 말을비앗지못하는
내마음 내마음

나는偶然히 紫霞門에게대서 서北岳山을 바라보며 이러한 即興詩를읊흔 지난봄일이 마음에떠오른다·더욱히넓은

平野 를가지지못한 天生의나무꾼인 우리조상들은 노픈山봉오리의 큰뜰에 寺院을 세우고 庵子를닥거서 그곳에 그들의精神王國을 建設하엿다

그럼으로 우리가 가진 文明은 山谷文明이다 山谷을사모하는그러한 祖先의피가 수천년을지나서 나의血管에서도 [illegible] 나는山을그리워하는지 대체나는 京元線을밟어서수십차나 往復하면서도

東海 로보내는길을 旅路만 보질업시 남기면서아직도金剛山한번보지못하고잇다 그러면서도 나는山을말할資格이잇슬가

願生高麗國하야 一見金剛山이라고한것은 참말로閑暇한中國사람의한말인지 혹은우리祖先중의어느달팽이만한 國粹主義者가僞造한말인지는몰라도海東의백성이면서 아직도金剛山과親面이업다고하는것은 分明히 恥辱이아니면아니된다

今年에는 기어히春園의『金剛山遊記』다「포켓트」에넛코金剛山을차저가련다 도라와서는 그의「金剛山遊記」를 옷질쳐

山岳 文學을쓰련다 혹은지금쓰지도내힘으로는그러한힘을할수업스니까一種의紀實을쓰겟다 위해서기행부터金剛山을구경하지안은것이나 아닌가 그도모를일이다

今年에도「로맨쓰—」는만을써 創作을계획하면서 뒤부는西풍동지고 례방湖畔의別莊으로갓슬것이다「마르는네」는그의「알프스」山속의山莊의書에기대여 당배를피우면서또다른『밤』을

構想 하고 잇는지 나도올에는 長安寺의마루에걸안저서『밤』이아니고『아츰』이나한篇構想해볼가 그러나모다弄談이다 罪는 나의空想에게밧게는업다 (七月一日아츰)

解放의여름 平和의밤
金晋燮

잇섯든것은 간다 그리하야 모든것은 오즉 하나의追憶일수잇슬뿐이다『印度의熱』를 우리에게까지 가지고오는炎炎한 녀름날의太陽도 밤이되라면 드듸여 가고야만다『낫(晝)이업는곳에 잇는 밤』은 그어두움과 그冷爽함을가지고 더위에허덕이고잇는우리를 어김업시 싸주는것이다 참으로녀름의밤과가티 時節의苦惱를더러주는밤은업다

時節그것의氣溫的苦惱를 떠나서 이미 우리의生活은 누구나할것업시 限업시 고달푸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다 그곳에

休息을 求할터인花園을 가질수업는것이다 규작히 무르녹는더위는 와서 우리의全身을壓迫할째 여긔 우리의牧歌에對한 憧憬의情은 勃然히 머리를든다 暫時라도 이시ㅅ그러운生活 이괴로운더위를 避하야 서느러운바다 고요한山으로 가랴는것이다 그러나不幸히 避暑의길은 모든 사람에게 通하여잇지는안타 우리는 흔이 녀름의밤과밤에 평상우에橫臥하야 부채로 더위를날니면서 이번에도實現할수업는 牧歌戀戀의情을 消化식히는것이다

어데를가도 그러나 녀름은 더운것이다 더운곳에 녀름의 眞理는잇다 서놀하다는것은結局은 더위에對한相對的槪念에 不過하다 옷을입고 땀을흘며 가면

牧歌를 찻는것도勿論조치만녀름날에 잇서 무엇보담도緊急한일은 외를벗고 몸의濁流를 洗去하는데잇다 이리하야 녀름의밤은 하나의辛辣한諷刺家인거나가티 그獨特한 熱度를가지고 모든사람과 또 그들에屬하는生活面을 外部에까지 完全히 暴露식히고마는것이다 이케오히려속에 頑固히 머물너잇는者는업다 모든窓은열녀지고 길거리에 흐르는 사람의소리도 따라서 놉고明朗하다

녀름의밤은 모든것을 解放한다 이여름밤의解放性은 自然과人間 外部와內面이 何等의

隔意가 가업시完全하合體되게까지니르는것이다그럼으로우리는 녀름밤에잇서 다른쌔는 보지못하든것 만질수업든만흔것을 볼수가잇다그러나 녀름의밤이 이와가티解放的이면解放的일수록 그反面에잇서 그것이더욱

神秘에 찬것으로서우리의눈압헤낫하나는것은 또異常한일이다 굿이닷친門속에 엇더한生活이잇든 그를 우리는 알라하지안는다 半쯤열닌窓안에ㅅ조곰露顯된生活內容이 우리의好奇를 차라리 잇그는것이다 녀름의밤은 全面的으로 우리에게 우리가經驗코저하는 感情의端緒를 生活解放으로依하야 오즉 提供하여줄뿐이다 엷은綺羅를通하야 은은히보이는女子들의 香氣잇는皮膚에例를求하야도조타! 그『알라바스터—』가티도흰살이 눈안에 보이면서도 우리가 그以上엇지할수업는곳에 녀름의밤의애닯은神秘主義는잇는것이다 모든것이 親近을늣기게하면서도 그러나 犯할수업는威嚴을가지고 녀름의밤의裸體化는 解消하게 그러나

嚴肅하게 實行되는것이다

녀름의밤이되면 依例히나와 사람의피를쏫는生物들의名譽에 對하야서는 말하고십지안타 생각하기조차 그것은不愉快한 싸닭이다 녀름의밤이라도特히 서울의밤은 街頭의住民에依하야 赤裸裸한生活表現은 그極에達한다 골목골목에 녀름밤사람은一團이되여 談笑話聲은 그칠바를모른다 天下에는敵이업는듯하다 돗자리한장을隔하야 써우에자는露宿의무리에도 巨大한平和가잇슬뿐이요 어느곳에 人生苦가잇는지알수업다 모든것이快活하고 모든것이輕易하다 오즉여긔서間或要求되는것이잇다면 그것은 쐬는듯한이더위를시처고갈一條의소낙빈가한다 소낙비란 都會의自然이다

赤帝는 一의暴君일뿐이다 녀름의太陽압헤 우리는洗默을직히는수밧게업다 그러나 밤이오면 모든것은生動하기始作한다 녀름밤의思想은實로가비압고또어엽부다 밝은窓의커—텐을 通해흘너나오는피아노의曲調에 묻는것는밤을멈치고 귀를기우리면 이아름답고밝은 밤을그대로 자는것이앗가웁다 限업시우리는 이開放된거리를 祝福하며것고커한다 녀름에어름이잇고 비—루가잇다는것은 多幸이다 옷동을버서붓치고麥酒를기우리는風趣가 決코나부지안타 女給의팔목에 땀이촉촉하고여 更生되細胞가 노근하게될쌔 우리의享樂에對한欲求는 바다와갓치 고요히웅즉인다 또하나의 커다란人間愛조차 우리의부드러운靈魂으로부터由來하는것이다

人間愛—— 그러타! 露宿하는무리에 쉬여못잘이 섬섬하다 집에박게 도라갈곳이업다할이 녀름밤이緣故로 더욱 슯흐다 都會에 달이솟데업지만나는 녀름달에 對하야서와갓치生理的快適을 늣기는때는 업다 다른時節의달은 나에겐 차다 깁흔밤에 녀름달을니고 집에돌아가는 나의思想은 참으로傳達할수업는 하나의深刻한詩에 十

懸賞小說—
昨日로募集終了

懸賞小說募集은 六月三十日로 終結하엿습니다 延期要求가 遝至하엿스나應募된 原稿가 一百四十二篇의多數에 達하얏슴으로 延期치안키로하엿습니다。

豫選發表는 七月十五日
決選期限은 八月三十一日로 決定하엿슴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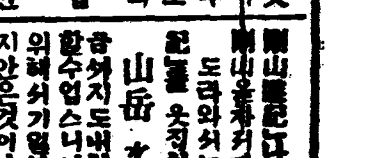
녀창호今日休載

七月二日(日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〇時五〇分 雜歌
一、愁心歌
二、역금
三、山念佛
四、병신난봉가
五、사설난봉가
六、자진난봉가
崔貞植 全山月
◇同一時二〇分 (A)現代音樂
島蘭(第四回) 西班牙音樂
一、獨唱
가、노래 닌—作曲
나、木馬 페도렐作曲
다、물네방아간사랑 스베르뒤아作曲
라、차박휘는울넌다 페도렐作曲
마、호라 파리아作曲
二、獨唱
가、검정눈 알버레스作曲
나、엥러라 페라—作曲
三、피아노獨奏
가、三昇시頌歌 파리아作曲
나、火祭의춤 同
解說並獨唱 照井瀴三
피아노獨奏及伴奏 高木東六
기타— 伴奏·小倉俊
◇同六時 童謠
一、合唱 會돗밤
二、獨唱 우리집송아지
三、合唱 기러기
四、獨唱 고드름
五、二部合唱 농촌어린이
六、獨唱 뽀부랑두덕
七、合唱 陽春佳節
明星學院兒童一同
指揮 金寶經
피아노伴奏 黃熙文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말을삼가라 張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머리 나、자진머리
二、併唱 가、短歌 나、사랑가 다、離別歌
沈相健 鼓手 沈明珠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데에이니勳作 異河潤譯 延專文友會研劇部
◇同八時三〇分 歌謠 指揮 鄭寅燮
一、春眠曲
二、길군악
三、乾坤歌
吳柳色 申花仙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
金素姬
◇同九時三〇分(A) 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修養講話 午後六時二五分
말을삼가라 張勉
一、言語의性質과價値
二、惡用의害弊—個人的社會的
(가) 他人의名譽를毁損함 (模擬 誹謗 誣陷 侮辱)
(나) 虛僞(噓言 僞善 阿諛)
三、修養法
(가) 多言을避하고沈默을愛하라
(나) 熟考後에發言하라(特히發怒時에)
(다) 言行一致하라
(라) 用語의選擇發言의時場所相對者態度에注意하라
(마) 各自의言語上惡習부터고치라
(바) 平素에人格修養을不怠하라

◇第一放送順序◇
七月二日(日曜) (波長三三三米)
▲午後〇時三〇分 ニュース ▲同〇時五〇分 滿洲より ▲同一時二〇分 陸上競技實況(滿洲中繼中止の場合は午後一時より)早大對全京城—京城グラウンドより中繼— ▲同六時 マンドリン合奏ご童謠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B) 地唄 ▲同八時(A) 連續人情噺 ▲同八時三〇分(A) 歌謠 ▲同八時四五分(A) ラヂオドラマ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35】 蔡萬植 作　吉鎭燮 畵

첫경험 (六)

이러니 저러니 이약이쓰테 그러면 과정을 곳치어 재봉과편물을 한시간씩 공통으로 하고 언문과만 갈은반을 따로따로 하기로하엿다

그렁저렁 한 이주일 야학은 계속하엿다 그러하는동안에 야학생이 하나줄고 둘줄고하다가 음력 섯달 대목에 닥쳐서는 두반을합하여 열명도남지못하엿다

노—라가 선생이되어 야학을 한다니까 모다들 호기심에쓸니어 너도나도 모혀들엇든것이 결국 다니면서 보아야 별 신통스러운것이 업서 실증들이 난것이다

그러한데 이 야학에 결정적 타격을준 사건이생기엇다

노—라는 야학생들에게 학과를 갈으키는 것외에 각금 시간을 내어가지고 신문기사를 참고삼어 세상형편이약이도하여 들녀주고 일반 가정생활의 비판가튼것도하여주엇다 미신에 관하여서는 사제간에 굉장한 토론도잇섯다

그리하든쓰테 어느날인가구가정부인의 부덕(婦德)을 비판하는 의미로 이약이를 시작하엿다 이것은 개학하는첫날에 노—라가 입이 마음에 게획하고 잇섯든것이다

이약이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되엿다

그들—야학생들도 다가티 세상사리의 첫걸음인 결혼부터 잘못하엿다 아직 생리적으로 완전히 발육이 되지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한사람목슬 하지못하는 어린 소녀가 역시 입에서 젓비린내가나는 실낭한테로 시집을 온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집장가가아니라 량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긔네의 딸과아들에게고흔옷을입히어 가마태우고말태워 초례청에서 절하고 하는 결혼의 숭내를내는 재롱을보는 재미로써그러케식힌것이다

여기써지 이약이를 하여왓슬째에 야학생으로부터 질문이들어왓다

사람마다 자식낫코 날나면 이십권에 혼인을하여 저이써리 쌍쌍히 잘사는것을보고 또 그몸에서 생겨나는손자의 재롱을 보는것이 인생의 낙이오 부모된사람의 맛당히 할일이다 그러고 자녀된사람은 부모가 식혀주는대로 조차야 효도가 되는것이다……이것이 옛사람중년부인의 노—라에게대한질문의 반박이엇섯다

여긔에대하야 노—라는 결혼의 의의를 설명하엿다

결혼이라는것은 부모에게 매미를 뵈려고 하는것도 아니요 자식을 나어서 부모에게 손자를보는 재미를 뵈려는것도 아니다 결혼이라는것은 사랑과 리해와 동정이 잇는완전히 성인된 한남자와 한녀자가 결합이되여 가정을 일우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종족을번식식힘으로써 생명을 연장식히는것이라고 말을하엿다

「부모업는 자식이 어듸잇고 자식업는 부모가 어듸잇담 그럴려면 부모와자식이 조할것이 무어여!」

하고 중얼거리는 이도잇고

「그건 되놈의 법이다」

하고 혼자말가치 비웃는이도 잇섯다 노—라는 상관치아니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엿다

그러케 당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혼이기때문에 실낭은 안해의 남편이 아니라 장인장모의 귀염둥이요 며누리는 남편의 안해가아니다 시어머니의 종이다 흔히 시골부인들이 말하기를 어서며누리를 어드면 좀 편하게살터인데…… 하는것은 며누리를 어더다노코 일을식혀먹자는 생각이다

이와가치하야 그들이청장한 부사이나 서로[illegible]로사랑이라는것이잇슬[illegible]업다

그리하야 안해는 장성하면 시부모의 손으로부터 남편의 손으로 건너와서 역시 밥을 지어주고 옷을 쭈매어주고 자식을 나어주는 기계요 종노릇을 할쌔름이다

그런데 남자는 원갓 일을 모다 자기 마음대로한다 술을먹고다니고 외입을하고 다니고 첩을 둘 셋씩 어더 데리고살고……

그리하건만 녀자는 아모런 반항도 하지를못한다 남편이 죽으라고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녀자를 남자의 한 부속물로 역이고 모든것을 남자본위로 한 녯날도덕과 습관과 법률이 그대로 남어잇는때문이다

지금은 세상이 박귀엇다 녀자도 당당하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녀자도 한사람으로서 살어가자면 맛당히 그러한 남편과 그러한 가정을 버리고 뛰여나서야 할것이다

노—라는 흥분이되어 말을

暴雨! 全州에暴雨!
一時大修羅場化
全州川刻刻增水
全群、全南間交通全部杜絶

【全州】 지난이십륙일부터시작한비가 지난이십팔일 오후십이시경까지 계속하야 전주천(全州川)의증수(增水)는 약오척이상으로 일시는 대수라장(大修羅場)을일우엇다 일로말미암아일시는 교통이두절되야 경전북선(慶全北線)은물론전군간(全群間)의자동차와전、남간(全南間)의자동차등의 운행을못햇든바 이십구일에와서야 겨우운전을개시하얏다

全北道內 各地雨量

【全州】 전주지방에폭우로일시는 전시장래를 이루엇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개원되든비는 게이지안코 이십구일에도계속하야 일반인심은 매우홍수중이매 이십륙일부터 이십구일오전십시까지 나린 전북도각군의 강우량은 다음과갓다한다

全州 一〇三미리 淳昌 一五五미리 茂朱 七一미리 鎭安 一五五미리 高山面 一一三미리 扶安 一七四미리 群山 一六五미리 長水 一四八미리 高敞 八一미리 任實 一五八미리

警鐘亂打 非常召集
宛然戰時狀態
犧牲者二名을내이고 浸水家屋三十二戶

【全州】 전주지방에 폭우로 말미암아 교통등의 두절되엇든것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전주천의 증수는 일분일각으로증수되야필경홍수는바천을넘어가잇자 전주서에서는경종을 란타하야서원과소방수를비상소집하야제방수리에착수하는등완연히전시상태(戰時狀態)를이룬중 전긔회사에서는 백촉광의림시전긔를 사방에다는등 일부에서는 자지말라고외처 일반인심은 극도로 공포를늣겻다 전고대홍수로 말미암아 전주에서금년으로 제이차의 희생되문숨이 잇스니 그는전주천변에다 오두막집을짓고사든 륙십로인과 이십이넘은 녀자로서 사체도아즉 건지지못햇다하며 침수된 가옥이 전주에십팔호 소양면에십사호로 손해등은 방금조사중이며 농작물에는 큰손해는 업스리라고한다

榮山江…◇增水二十六尺
卅戶一洞이全滅狀態
當分繼續降雨

【榮山浦】 전남영산포(全南榮山浦)에수란(水亂)으로 혼란중에잇다는것은기보한바어니와 영산강증수(榮山江增水)가이미이십륙척이나되여 영산강상류(上流)에잇는삼십여호되는 『질목포』란동리가 전부침수(浸水)되여 일백오십여농민이 홍수에싸여생명이경각에잇스나만반설비가충분치못하야영산포에서는별도리업시창황망조하고잇든바다행히삼십일오전두시부터이척가량이나감수되드니 동십일시부터다시계속주입으로영산포일반은역시우수중에싸혀잇다

浸水家屋 五十七戶
家屋破壞 四戶

興)청양(靑陽)간동행 자동차가불통됨으로 우편물까지 불통되엿스며 삽교(揷橋) 서산(瑞山)사 자동차도 역시불통중이며 다리주락물에대한손해도불소한모양이라한다

通川에도 連日降雨繼續
農民不安狀態

【通川】 지난 이십칠일 저녁부터 나리는비는아직도 개이지안코 나려지금은넓은 벌판에물빗뿐임으로 일반농민는 큰불안을늣기고잇다한다

長箭地方서도 大洪水憂慮

【長箭】 장전지방에도지난이십칠일부터 나리는비는 아직개이지안코 장전항부근 저지(低地)는 수면에 접근하엿는데 금후우량의 여하로는 또대홍수의참극을면치못할지 모른다하야인심이 자못흉흉 하다한다

成歡川에서 鑛夫一名溺死

【天安】 지난이십팔일에도아침부터 폭우온쏘다 지는가운데 성환면매주리(成歡面梅珠里)에거주하는구의회(具義會)(四〇)는 시름쇠란곳에잇는 민윤호(閔潤鎬)씨가경영하는대창광구(大昌鑛區)의광부(鑛夫)로잇든바 아츰밥을먹고 광구작업장소로 가는도중 성환천상류를 건느게되자맹렬이부듸치는물에휩쓸니여비참하게도 빠저죽고 말엇다한다

禮山中心의 交通全部杜絶

【禮山】 충남례산지방에는금월이십팔일 아침부터 계속하야 그이튼날까지 폭우가 나리기시작하야 례산읍으로부터대흥(大

浸水畓이 二千餘町步
降雨量이百七十미리
咸平地方水害

【咸平】 전남함평군일대는지나간 이십팔일오전 사시경부터 사십시간에 일백칠십미리의 우량이잇섯는데최수다낫浸水畓이이천여정보가 된다고한다 그중에서 제일침수가만흔곳은함평면 대동면 라산면 해보면 월야면 학교면 엄다면등지라는데해수되기전에는 피해정도를 알수업스나 호남선학교역에서 함평읍까지의 교통자동차는 이십구일오후부터 불통이되엿스며 방금도 비는쏘치지 아니하고 물은점점부러나는데 일반인사는 금년농사가 수포로도라갈것을 극도로 렴려중이라한다

慶州博物館 古物橫領事件
豫審의終結

【大邱】 경주군경주읍동부동(慶州郡慶州邑東部洞)에거주하는 경주박물관장(慶州博物館長)제록앙웅(諸鹿央雄)(?)과동읍황남리(皇南里)에거주하는김홍대(金洪大)(?)와 동읍황오리(皇吾里)에거주하는서영수(徐永洙)(?)의세사람에대한 장물고매(贓物故買)동긔장(同寄藏)아보횡령사긔(橫領詐欺)장물고매(贓物故買)고물횡령사긔사건(古物橫領詐欺事件)은 담춘이래 대구지방법원 예심판사유택(有澤)씨가 심리하든중이십팔일에 예심을 마치고 유죄로결정되여 삼인을 동법원공판에부치엇는데 그중 제록의횡령사긔는면소(免訴)가되엿스며 변호사 무미정장(武尾楨藏)씨의보석원(保釋願)으로말미암아 제록은보석하게되엿다한다

道議員趙東元
六個月役言渡
二個年執猶

【洪城】 무보=충남서산군고북면양천리(忠南瑞山郡高北面楊川里)조동원(趙東元)은 금번 도회의원선거에제하야당선되엿든바선거위반죄(選擧違反罪)로일시문제가되얏든것이무죄가되자 검사는이를 고소하는동시에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로구인취조한후 공판에 회부하엿든바지난이십팔일 공주 지방법원홍성지청(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법정에서장곡천판사(長谷川判事)의주심으로 검사(檢事)의립회하에 공판이개정되야 심리가끗나자 검사로부터 륙개월징역의구형이잇슨후 륙개월징역에이개년집행유예를 언도하엿다한다

高城記者團
創立總會開催

【外金剛】 강원도 고성군내(江原道高城郡內)에잇는각신문지국을 망라하야 지난이십오일오후구시부터 신문긔자단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출석지국은 다음과갓다

朝鮮新聞 釜山日報 京城日報 朝鮮日報

法網에걸린
天安釀造業者
不正藥品多數押收

【天安】 천안군청세무게(天安郡廳稅務係)에서는 요사이돌연히 활동을개시하야 군내십삼개소의 주류양조장(酒類釀造場)을 대수색한결과 천안읍을비릇하야 여섯사람의 양조장에서 『삭가린』과 불말고신(粉末苦辛)등의 부정약품을 다수히 압수하엿는바 법으로는 주세령범칙을적용하야 단연히 이십원이상이천원의 벌금을징수할것은 물론이고그외에 그양조수량을 조사하야 매석에 삼십삼원의주세를증수 할작정 이라한다

前後八回에亘한
放火犯少年逮捕
동무부친에게무리구타당코 결투리로시작한것이동긔로

【平壤】 강서군증산면석흥리(江西郡甑山面石興里) 김재수(金在洙)(一三)라는소년은이십오일방화죄로 강서경찰서에 체포되엿다 김재수는 이웃동리백명옥(白明玉)의장남백효원(白孝元)(一三)과 놀든중 다른아이에게 효원이가 구타를당한 것을 백명옥은김재수가 구타하엿다고 오해하고재수를 란타한 것이 원인이되여 재수는긔어히 시어울하게 매마즌것을 복수키위하야 이월이십사일밤중에 백명옥의집에 석냥으로 방화하여 동이의집 일동이홍을 전소케하야 손해륙백원을내엿다 재수는 복수로 방화한것이나 화광이충천하고 쇠도는장면이 자미스러워서 틈틈이 동리사람들이 놀난노름 등인이십사일까지 전후 팔회의 방화를하여 동리에서 신화(神火)라고까지 떠들게한것이라한다 그리구피해자도 십여명에 달하엿다한다

◇被害者 白明玉 朴永春 金命昊 韓明淵 金永鎬 張日運 李圭惠 郭鐘旭 李基緖 白道愛 李奎惠

平壤에工場熱
金利低下로
着着計劃을進行中

【平壤】 불경긔를부르짓는반면에 평양에는 경긔조흔소식이들녀진다 최근각금융긔관 에서는 금리(金利)를 감하하엿으나불가는여전히등귀하는터임으로현금을 예금하는것보다는 참아리대규모의공장을세워각종물품을대량생산하여 만주방면에수출하면 훨신리익이 만흔것을각방면에서 충분히조사한후 목하제화(製靴) 제과(製菓) 방직(紡織) 『메리야스』직조(織組) 제분(製粉)등각공장을설을 계획착착진행하고잇다고한다 그중에서도제화공장(製靴工場)이 가장유망하다하여 이십만원정도의자본으로회사를창립코저목하모모등부호들이실현을위하여착착준비중이라고한다

鐵原初有의
少女俱樂部

【鐵原】 철원소녀구락부(鐵原少女俱樂部)는 집에서한가히노는 소녀들을모아가지고 조직된것인데 그위치는 철원읍중리(鐵原邑中里)녀자관(女子館)안에두고 매주간목요일을 집회일로정하고 집회당일에 하는과정하보는 첫재주간에사무처리(事務處理)와 유희(遊戲)둘재주간에는 재봉셋재주간에는 위생마즈막주간에는 독서(讀書)와 농사실습을하는데 그회의 지도원으로는 철원교회내의허정환(許貞煥)윤정옥(尹貞玉)김남주(金南珠)제씨의 헌신적사업이라할수잇스며 회원은 나날이늘어사십명에달한다고한다

九十老人의
求職歎願
事由더욱壯觀

【平壤】 자다가도바장대소할 취직운동 강서출생(江西出生)으로 현재평양부내교구정(橋口町) 십구번지 김룡하(金龍河)의집에잇는김종만(金鍾萬)(三)이란 로인은 십삼일우원(宇垣)총독에게 다음과가튼 진정서를발송하고 취직을 시켜달라고햇다한다 자긔는 소년시대에 과거보아 진사(進士)의 렬에 참가한 실로문벌이 당당한사람으로 금제동긔생(同期生)들은 전부가최하에군수(郡守)요대부분은 참여관(參與官)지사(知事)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등에 등용되여 자동차타고 호의호식하고잇는데 자긔만은등용이 되지못하여 생활이여지업시 빈한하여 목하남의집에서 찬밥술이나 어더먹는신세가 되엿스니 속히관청요한 지위에 취직을식혀달라는것이 진정서의 골자이라한다 당국에서는김종만이가 혹시정신병자나안인가?하여정신감정을햇더니『정신이상업다』는감정이 날이엿다하여 방금평양부내에서는 한이야기거리가 되여잇다한다

垈地三百坪을
公普校에寄附
申龍俊氏篤志

【北倉】 평남덕천군잠상면룡상리(平南德川郡蠶上面龍上里)신룡준(申龍俊)씨는맹산군봉면

西朝鮮一週 마라손競走 【開城】 개성출생오룡성(吳龍成)백수긔(白守基)량군의 서조선일주(西朝鮮一週)의마라손은 커간천후(天候)불순으로예정대로 출발치못하고 칠월일일오건구시 본보개성지국압에서 출발하야 일로서조선일주 의길에올을예정이라는바 량군은 다년간 장거리에경험이만흔선수로 수년을두고 사시로 연습에게으름이업시 오늘까지 계속을하는군으로 금번 서조선일주 약삼천리되는길을 조선소년군대장(朝鮮少年軍隊長) 문순룡(文順龍)군의지도를바더『마라손』으로돌파하라고 제반준비를다마치고출발일을고대한다하며 출발한후 도착되는곳마다 조선일보지국을 방문하리라한다

◇寫眞=右로부터開城支局長崔道成 選手吳龍成 選手白守基 指導者文順龍

鄕土色

【清津】 금년도의청진청어(鯖魚)어획(漁獲)의성적은지금까지 량호하여 함북수산조합(咸北水産組合)의 금년도어유(魚油)와 비료(肥料)생산의 예상량(豫想量)은 어유가 백만관(罐)온비(鰮肥)가삼십만표(俵)이엇는데 지금까지의 산출된교박(絞粕)이 구천여표가되여 예상량을 훨신초과하리라는데 현재시가 삼원사 오십전가량으로대판(大阪)신호(神戶) 이세만(伊勢灣)관문(關門)등시장에수출판매한다고한다

【白川】 조철에서는백천온천의 승객이불자부산에검하하야 이래 현안중이든백천온천(白川溫泉)개성시내(開城)간의 자동차선로가 인가되여 칠월일일부터 이히왕복으로 개통한다는데 발착시간과 료금은여좌하다 한다

白川溫泉發午前八時三十分
開城着同 九時五十五分
白川溫泉發午後二時三十分
開城着同 三時五十五分
賃金 片道 八十五錢

【高山鎭】 함북 고산진지

육협회 계일하청긔총회를 지난이십사일 당지보통학교에서 개최하고역원개선(役員改選)급금년도에행할사업인 야구대회(野球大會)제이회압록강정구대회(第二回鴨江庭球大會)를 쌀결정하고 무사히 산회하엿다고

【通川】 강원도통천공립보통학교(江原道通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수일전부터준비에분망하든 학예회를 지난이십오일오전구시부터 본교강당에서 개최하엿는데 천진란만한 일이학년 아동들의귀여운 재롱에는학부형들은물론 수백명의 래빈들의 박수갈채리에 오후네시무사폐회하엿다한다

【漁大津】 함북 어대진경찰서(漁大津警察署)에서지난이십일일 당지에서 음식점영업을경영하고잇는자와작부(酌婦)들을모아녹코작부대우개선(酌婦待遇改善)문제를비롯하야 만흔훈시가잇슨후 하긔위생법에대하야만흔주의를주엇다한다

【大田】 대전북정(大田北町)팔십오번지에사는한성렬(韓聖烈)의처홍순금(洪順今)(二六)은정화교(聖化敎)를 미더오든바우연히귀신이들니여지난십팔일에 집을떠나 어느곳으로갓는지 행방불명이 되엿다고한다

【鎭南浦】 진남포부에서는 칠월일일부터 구월삼십일까지 삼개월동안 우리의생명을좌우하는 파리를철저히 업시하고저 긴긔간안에 파리한쌍식을 경찰서나 파출소나초등학교에 가저가면 추첨권한장과 청량한음식을 주기로하고 십월십일추첨을하야 아래와갓치 상품을주기로하엿다

一等、現金十圓 二等、現金五圓 以下五等까지 六等다오루一本式百名

【安東縣】 안동수원지에서는 커수량의부족으로 지난십일일부터 일일삼회식 제한하야 급수하기로되여공고발표하엿든바그후 일반시민의 절수와이십사오량일의 강우혜택으로 수량이점점불어감으로이십팔일부터 일일이회로 급수키한을 변경하여 급수시간도 다음과가티연장하엿다한다

自午前五時 至午後一時
自午後四時 至午後八時

五名은免訴!◇
七十名豫審廻附
治維、出版、騷擾、暴力等罪로
端川農組騷擾事件

【咸興】 소화오년십월칠일경순경에ML공당계(共黨系)중견인물이최영준(崔英俊)의지도아래에 합법단체 단천농민조합을 비합법단체로 개혁하고ML系 단천『야체이카』를조직위원장으로피고 김재규(金在奎)가피선되여 단천군부를두고 오십여조의 강령아래 활동하야십오개지부(十五個支部)를두고 지하운동을하엿다는 리유로 이래함흥지방법원 예심에걸니여잇든바 지난 이십사일에야 겨우종결을보게되여 피고칠십오명중최인(崔寅)외네명은면소되고 김재규(金在奎)외륙십구명은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폭력 상해등죄명으로 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엿는바 그성명과지부별(支部別)은다음과갓다

◇公判廻付者
金在奎 洪淳勳 趙在勳 金京濂 李元松 金鳳翼 崔允斌 金衡珏 梁禹磐 李周濂 姜斗益 崔秉夏 金秉喆 金軫星 朴容興 朴希洙 許秉律 李甲林 金德威 趙炳妥 崔致極 黼學烈 沈澤 鎖 崔季漢 崔壬淳 康八龍 金仁燮 金德洙 崔斗建 朴宗淳 朴昌洛 李明燮 趙宗勳 李昌林 朴化淳 李鳳淑 金平 金晉國 沈升範 姜昌俊 成泰允 沈貞河 李貞信 崔辛祿 金貴石 金賢根 朴治根 金德俊 李容洙 金東默 金基活 金在炎 金鎔 突 金辛球 金淳深 金昌允 李亨松 金明松 金尚應 沈昌浩 崔元弼 韓貴石 徐衣 萬 康基彥 沈敬亭 吳炳根 金得喬 李相祖 崔秉喆 康秉朝 沈河鉉

◇豫審免訴者
康秉朝 崔明學 崔貫 康秉

◇十五個支部
水下中區 水南中區 水下北區 廣泉南區 廣川東區 廣川西區 利中東區 利中中區 福貴北區 福貴中區 福貴南區 福貴東區 河多西區 新滿南區 波道南區

赤色學生事件
各二年役言渡
五年間執行猶豫

【咸興】 기보=반제동맹(反帝同盟)학생적화계획(學生赤化計劃)등죄명에 관한영흥(永興) 륙학년생강순삼(姜淳三)박상의(朴相義)등 두학생에게 등본재판장으로부터 각이년징역에오년간 집행유예를 언도하얏다한다

龜尾大新間
停車場新設

【龜尾】 경부선 귀미 대신간(京釜線龜尾大新間)에 정거장(停車場)을신설(新設)한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간 모든설계가완료되여 얼마전에 공사에착수하엿는데 팔월중순경에는 준공(竣工)될터이라한다

繭價高騰으로
農村經濟緩和

【沔川】 충남면천에서는춘잠견공동판매를 지난 이십륙일에 끗막엇는데 금춘의 잠견총량이오천칠백여관으로 그대금이 이만이천오백여원이라는 수자를 계상하얏다 그것을 거년도에 비하면 출견총량은 오백여관이 나감소되엿스나 금액에 잇서는 약삼배에 달한다하며 거년도당진 면천량판매소에서 판매한총액보다도 만타한다 물론이것이 단순히 면천지방에만 떠러진것이아니오 타군다면것이 륙할강을 점령하얏스나여하튼 이것으로인하야 궁박한농촌의 경제는 잠시나마 좀완화된모양 이라한다

東京、平壤間
鄕土訪問마라손
金華榮君釜山通過

【釜山】 동경(東京)서 평양(平壤)까지향토방문마라손의장거리를결행하는김화영(金華榮)군은이십칠일밤으로본보부산지국(本報釜山支局)에서류숙하고이십구일 지리한 구진비가떠붓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일시본보부산지국(本報釜山支局)문압출을발하야 밀양(密陽)으로 향하엿는데그는다음과가튼일자로경성까지와서 경성평양간의 코ー쓰는다시결정하기로 되엿다 한다

六月二十九日密陽 同三十日大邱 同七月一日金泉 同二日永同 同三日大田 同四日鳥致院 同五日平澤 同六日京城

公金分失事件
投書者送局

【大田】 작년이월십칠일대전우편국(大田郵便局)위체계(爲替係)에서현금 일백원이행방불명(行方不明)된사건을 일시문제가되든공금분실사건에대하야 그동안 별별억측이만헛스며 심지어 무녀에게 점죽까지처서 그행방을 알랴고하여도 의문중에싸히엿든 사건인데 우연히금년륙월에 충남경찰부에투서한장이 들어왓다 그투서의내용은 우편국공금분실사건의주인공은 당시 위체게에잇든청수하쓰(井手ハツ)라는녀자의소위이며 그외에도 우편국장 이불미한점이 만타는것 이엿슴으로 대전경찰서에서는 즉시조사에 착수하야 극비밀리에 그진부와투서한사람을 조사하든바 백원분실사건은 역시미해결 그대로이며투서의 주인공은 대전우편국에서 다년근무하다가 엇든 감정으로사직한 관정광길(管井廣吉)로판명 되얏슴으로대전서에서는 엄중한 취조를맛치고지난이십사일대전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함께넘기엿다고한다

洪水求景타
少女溺死

【全州】 지난이십륙일부터나리는비는 쉬지안코나리여 전주군소양면(全州所陽面)의소양천(所陽川)은대홍수로변하엿다는데 이로말미암아 전주에서금년으로는 물에첫희생된 아해가잇스니 그는동면대흥리(同面大興里)사는 서성녀(徐姓女)의비게딸강순주(姜順珠)(一〇)로지난이십륙일정오경에홍수를구경하고 섯다가 부주의하야 그만빠지자 그급류에떠나려가우금까지 행방이불명하다고한다

市民慰安…
映畵大會開催

【海州】 해주읍 남본정 시장(南本町市場)에거주하는좌긔삼씨(左記三氏)는원래부터곡물위탁(穀物委托)을 경영하든바 이금월 이십륙일부터 동팔일간까지삼일간더러한 금권을 소비하야 가튼데위에 해주시민을 위하야 이여영화대회(映畵大會)를해주극장에서 개최하야 대성황리에무한한위안을 주엇다한다

海州南本町市場內 趙天熙 高貞鍋 崔智模

經營難에빠젓든
彰新學院復興
校舍新築、資格教員招聘
面內有志의奮發로

【新義州】 의주군 광평면청수동(義州郡廣坪面淸水洞)에잇는창신학원(彰新學院)은 그동안 경영곤란으로 비운중에 잠겨잇든바 금번광평면유지오동모(吳東模)장봉식(張鳳植)김윤정(金允正)강긔준(康箕俊)등 제씨가 협력하여 경영을하처의 권책이붓지고 금추를긔하여 교사(校舍)를신축하며 자격교원을 초빙하기로결정하엿다한다

巡查毆打事件
畢竟無罪判決
大邱覆審法院에서

【長興】 기보=전남장흥장동(全南長興長東)면청년회원(長興 會員)등이정순사(鄭巡査)를 구타하고구타감금죄(毆打監禁罪)로장흥지원에서십개월징역을바다 복심법원에 공소하엿든바 지난 이십삼일에 무죄석방하엿다 한다

崇專巡廻音樂大會 (講演 劇)

週日巡廻程
七月一日……平壤 三日……沙里院 四日……載寧 六日……安岳 七日……鎭南浦 八日……宜川

音樂其他演劇行事
音樂 管樂四重奏・提琴獨奏・四重唱・빠리톤獨唱 색소폰獨奏及二重奏・二重唱・保音獨唱
劇 우리行進曲・機械人間・동백꽃・十年後
講演 講座・農事講習・保健體操

◇主催 崇專學生基督青年農村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 同 各地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一의十五)
琴童 作
石泉 畵

『영초 김대감이 서찬을 보내 주셔서……』
부인이 홍선에게 이말을할때는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서리엿섯다
모든것이 영초의 보낸물건이엇다 명색은 서찬이라 하되 그것은 서찬이아니오 당분간의 홍선댁의 생활비와생활필품 전부엇다 금권 미곡 그밧게 생활품이 몃짐 영초에게서 서찬이란 명목으로홍선에게 온것이엇다
홍선은 눈을 감고 생각하엿다 아ー서 평경장에게 욕을 보고 치운겨울의 거리를지향업시 돌아다니녀에 길에서영초의 행차를 맛나서 억지로 자긔의 집으로 데리고 가든 영초─그뒤 주안을 다하여 자긔를 환대하든 영초─자긔가 돌아 올때에 격식을버서나서 중문까지 자긔를 보내주든 영초─체면업고 돈업는 자긔인지라 거리의 마바리단 하나도 자긔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업는 이괴박한・세상에서 당대의권문인 영초 김병학이 이러틋호의를 보여준것에 대하여 홍선은 감사하기가 짝이업섯다
돌아 보건대 현 상감의직접 이척되는 김씨의 일족은 물론이요 심모 남모 리모 홍모(沈某 南某 李某 洪某)하기를 막론하고 동석(同席)하기조차 창피하다고 피하는 자긔에게 영초는 무슨 호의로써 이런것을 보내엿는가 바를 가망이 업는 빗은 절대로주지안는 이 괴박한 세상에서 영초는 무슨 까닭으로 자긔에게 이러틋 호의를 쓰나
한참 눈을 감고잇다가 그 눈을 또면서 홍선은 이러케 말하엿다─
『홍 영초를 우의정(右議政)을 시켜주지』
부인이 미소하면서 홍선을 처다보앗다─
『우의정은커녕 대감께 녹사(錄事)하나를 시킬권능이잇습니까?』
『시켜주지 시켜주지 하다못해 꿈에라도시켜주지』
『그러치요 꿈에나 시기지생시에야 어떠케 시기겟습니까?』

홍선은 잠시잇든눈을 다시감엇다 예예를생각하는 망상이또다시 그를엄습하엿다 망상ㅅ가운데나타나는 자긔는 오늘과가튼 폐의파립의 가련한종자가아니오 이三백여주의큰나라를 호령할대원군인 자긔엿다 지금영초가 보내온새옷을갈아입고 아ー 옛날 한때조선을 이끌어가는 도이안커잇슨 재향은 그에는 아들이라는명칭으로는 부르지도못할 이나라의 지존이엇다
『부인─』
─그예는─그예야말로─
홍선은 눈을 감은채로부인을 차젓다
『네?』
『왕대비마마(趙王大妃)께서도…』
『아 참 엽박이겟습니다 무얼─어떤것을 하리셧?』
『무엇이고 왕대비마마께서도 우리가 곤핍한줄은 다 잘알오시니까 ××을・필아서라도 대비께 세찬을 이저서는안됩니다』
조왕대비─지금 대왕대비가 승하후에는 당연히 이종실의 가장이될것이다 조왕대비─비록 지금 락박하여 조석의 쉬니에까지 부자유를 느끼는 형편이지만 종실의 한사람이오 영특한 아들을 가지고잇는 홍선은 거기 대하여 엇더한 야망을 품지 안흘수가업섯다 호사가 업스시고몸이 약하신 현 상감─상감이 불행히 승하하신 뒤에는 신왕을 지정할 권리는 종실의어른되는 왕대비께 가지게될것이다 야심과 패긔를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잇는 홍선은 아모 보잘것업는 지금의 지위에 잇스면서도그것을 놀고나갈 계획을 임업시하고 잇섯다 그런 필요상 왕대비께 옌은 자긔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눈환심을 사두기를 게을리지 안흔것이엇다
한참 눈을 감고잇든 홍선은 고요히 눈을 감고잇든채
『영초는 령의정(領議政)이제목은 못돼 우의정이나주지』
그러고 이 말에 미소로서 자긔를 바라보는 부인을 홍선도 또한 미소로서 마조보앗다